

2010년 기술경쟁력 세계5위 도약

과기부, 2007년 30개 이행과제 추진 ... 바이오·나노 핵심기술 개발

과학기술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기초·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등 9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실천방안으로 2007년 30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기술 경쟁력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과학경쟁력 세계 12위, 기술경쟁력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과기부 박영일 차관은 2월8일 연두업무 보고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선진한국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9대 전략목표로 과학기술 혁신체제 고도화, 국가 연구개발(R&D)투자 확대 및 효율성 극대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및 성과창출 촉진, 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확대,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신산업 창출, 과학기술 대중화 및 안전한 연구환경 확보, 과학기술의 세계화, 원자력의 안전성 제고 및 평화적 이용 확대와 차세대 에너지기술 개발, 독자적인 우주 개발능력 확보 및 우주강국 진입 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비전 2030>의 핵심요소인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 확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 등 3대 성장동력 사업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강점 기술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Top 브랜드 프로젝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연연구기관간 협동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R&D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고, 총사업비가 1500억~3000억원인 초대형 사업 50여개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직접 사업의 성과와 추진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명공학(BT) 분야는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2008~17년)을 통해 바이오소재, 노화제어 등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나노기술(NT)분야에서는 테라급 나노소재, 나노소재, 나노메카트로닉스 등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부문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연구 사업 중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비중을 2006년 35.7%에서 2011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해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수혜를 받는 연구자들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 에너지 주권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8월 완공되는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를 국제적인 핵융합 공동 연구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관한 지원시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핵융합 연구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전문연구기관도 운영키로 했다.

과학인재 육성방안으로는 과학신동 발굴과 과학영재 교육 등 교육단계에서 취업→연구활동→은퇴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전(全)주기적 과학기술인 양성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신동에서 이공계 장학생으로 이어지는 과학영재 교육·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2007년 총 11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08>